

# 2차 쿠폰에 편의점 '신바람'... 생필품·식료품 등 할인전

## 22일 1인당 10만원 소비쿠폰

GS25, 리얼프라이스 등 최대 25% CU, 생필품 번들상품 69% 할인 세븐일레븐·이마트 24도 할인 동참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임박한 가운데 유통업계에선 희비가 갈리고 있다. 1차 지급 당시 소비쿠폰은 매출 증대 효과로 이어졌지만 백화점·대형마트·SSM(기업형 슈퍼마켓) 등 대부분 유통 채널이 사용처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2차 지급 이후에도 비슷한 흐름이 예상되는 가운데 유일한 수혜처로 꼽히는 편의점 업계는 대대적인 행사에 돌입했다.

정부는 이달 22일부터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에게 1인당 약 10만원씩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한다. 지급된 쿠폰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 금액은 소멸한다.

지난 1차 소비쿠폰 지급 당시 유통업계는 뚜렷한 소비 진작 효과를 봤다. 한



한 주민센터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안내하는 모습. /뉴시스

국신용데이터에 따르면, 1차 지급 후 4주간 전국 소상공인 신용카드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6.44% 늘었다. 이 중 유통업은 16.47% 증가하며 전체 업종 중 가장 높은 매출 신장률을 기록했다.

하지만 대다수 유통업계 채널은 수혜 대상에서 벗어났다.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취지에 백화점, 대형마트, SSM, 면세점 등이 사용처에서 원천 배제됐기 때문이다. 특히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가맹형 SSM은 1차 당시 소상공인 점포임에도 배제돼 형평성 논란이 일었지만, 2차 지급에서도 사용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 SSM 중 47%가 가맹점으로 운영되며, 월 평균 매출액이 3억원 대에 불과하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많은 SSM이 개인사업자인 가맹점주에 의해 운영되는데도 소상공인으로 분류되지 못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브랜드 이

름 기준이 아닌, 개별 점포의 매출액 기준으로 사용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규제 속에서 유일하게 이익을 얻는 곳은 편의점이다. 1차 지급 당시에도 편의점은 소비쿠폰 특수를 톡톡히 누렸다. 와이즈앱·리테일에 따르면 지난달 편의점 앱인 GS25의 '우리동네GS'와 CU의 '포켓CU' 월간 활성이용자수(MAU)는 각각 481만 명과 266만 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실제로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7월 소비쿠폰 특수로 편의점 월간 매출은 4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품목별로 보면 CU에서는 즉석밥(37%), 라면(32.6%), 주류(19%) 등 생필품 및 식료품 매출이 급증했으며, GS25 역시 국산우유(176.8%), 계란(48.6%) 등 신선식품 판매량이 크게 늘었다.

이러한 1차 학습효과를 바탕으로 편의점 4사는 2차 지급에 맞춰 대규모 할인전에 돌입한다. GS25는 PB '리얼프라이스' 상품군을 중심으로 최대 25%

할인 행사를, CU는 생필품 번들 상품을 최대 69% 할인 판매한다. 세븐일레븐은 '민생회복 초특가전 2탄'을 열고 2200여 개 상품을 대상으로, 이마트24는 3021종에 달하는 상품을 대상으로 '1+1', '2+1' 행사를 진행한다.

소비쿠폰 사용처에서 제외된 대형마트도 추석에 맞춰 자체 할인 행사로 맞불을 놓는다. 롯데마트는 이달 18일부터 24일까지 '초절약 쇼핑대전'을 진행한다. 이마트는 긴 연휴 감장 수요에 대비해 이달 18일부터 22일까지 절임배추 특별 사전예약 행사를 진행한다. 홈플러스는 이달 18일부터 24일까지 홈플러스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상품을 할인하는 '홈플러스상품 워크' 2주차 행사를 전개한다. 1차 지급 당시에도 대형마트들은 자체 행사를 통해 고객 발길을 붙잡는 전략을 펼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추석을 앞두고 고객들이 고물가 속 합리적인 가격에 명절 준비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손종욱 기자 handbell@metroseoul.co.kr

## 오뚜기, 고객만족도 라면부문 3년연속 1위

NCSI 80점... 전년비 1.3% 상승

오뚜기는 한국생산성본부가 주관하는 2025년 3분기 국가고객만족도(NCSI) 조사에서 라면 제조 부문 3년 연속 1위에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NCSI는 한국생산성본부와 조선일보가 공동으로 개발·발표하는 국가 차원의 고객만족도 지수로, 제품과 서비스를 직접 경험한 소비자 평가를 바탕으로 기업 경쟁력을 측정한다. 이번 조사는 최근 1개월 이내 라면을 직접 구매해 주 1회 이상 섭취한 만 16세 이상 고객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서울·부산·대구·대전·광주 등 5대 광역시에서 성별·연령별 표본을 배정해 총 1112명이 참여했다. 올해 3분기 라면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한 오뚜기의 고객만족도(NCSI) 점수는 80점으로 전년 대비 1.3% 상승하며 업종 평균(79점)을 웃돌았다. 세부 항목별로는 ▲고객 기대수준 81점 ▲인지품질 82점 ▲인지가치 75점에서 모두 업계



오뚜기 라면 이신혁 사장(오른쪽)이 17일 서울시 중구 롯데호텔 서울에서 열린 '2025 국가고객만족도조사(NCSI)' 시상식에 참석해 조선일보 홍준호 대표이사와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오뚜기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고객 충성도는 61점으로 전년 대비 3.4% 상승해 브랜드 충성도가 크게 강화되었으며, 이러한 개선이 전체 고객만족도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오뚜기는 올해 출시 37주년을 맞은 대표 라면 '진라면'을 앞세워 방탄소년단과 함께한 글로벌 캠페인 '진짜 Love' 등 다양한 국내외 광고와 프로모션을 통해 세계화에 앞장서고 있다. /신원선 기자

## 현미·보리·참쌀 '황금배합' 식사이론 잡곡주먹밥 2종

롯데웰푸드 '저속노화' 트렌드 1개당 전자레인지 2분 간편조리

롯데웰푸드는 현미, 보리, 참쌀 등 잡곡 3종을 황금비율로 배합해 구수한 풍미와 톡톡 씹히는 식감이 매력적인 '식사이론 잡곡주먹밥' 2종(참치마요, 차돌김치)을 출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젊은층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저속노화(Slow Aging)' 트렌드에 맞춰 혈당지수(GI)가 낮은 잡곡을 활용한 냉동 주먹밥으로 든든하고 간편하게 한 끼 식사를 챙길 수 있는 제품이다.

'식사이론 잡곡주먹밥'은 고온으로 구워내 겉은 누룽지처럼 노릇하지만, 속은 갓 지은 밥처럼 고슬고슬해 살아 있는 밥알을 자랑한다. 자극적이지 않은 깔끔한 맛으로 마지막 한 입까지 물

리지 않고 맛있게 먹을 수 있다. D-소비톨액, 아스파탐, 아세실람칼륨, 수용성안나토 등을 첨가하지 않아 남녀노소 누구나 맛있게 즐기는 것만으로도 건강한 식습관까지 챙길 수 있는 제품이다. 제품은 하나씩 꺼내 먹을 수 있도록 개별 포장했다. 또한, 주먹밥 1개 기준 전자레인지에 2분만 조리하면 돼 매우 간편하다.

롯데웰푸드 관계자는 "저속노화 트렌드 속 식습관과 생활 방식 전반을 바꾸려는 소비자들의 움직임을 발견하고 식사이론 잡곡주먹밥 2종을 선보이게 됐다"며, "앞으로도 식사이론은 간편식 시장의 대표 웰스&웰니스 브랜드로서 3040세대의 집밥에 대한 고민을 덜어줄 수 있는 다양한 카테고리의 간편식 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지난 17일, 국순당 신우창 연구소장(왼쪽)과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방혜선 농업생물부장이 국가 미생물 장기 안전중복보존 서비스 실시를 위한 산업미생물 안전중복보존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국순당

## 국순당-국립농업과학원 50년 선별 양조미생물 미생물은행 중복 보존

국순당이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과 국가 미생물 장기 안전중복보존 서비스 실시를 위한 산업미생물 안전중복보존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국순당이 5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선별해온 우수 양조미생물의 자체 보존과 동시에 국가의 미생물은행에서 안전하게 중복으로 보존되게 됐다.

농업미생물은행은 국순당의 전통주 양조 미생물들을 생물 보존에 가장 이상적인 보존법인 액체질소보존법과 초저온보존법으로 안전중복보존한다. 전통주 등 주류업계가 보존 중인 미생물에 대해 국가가 중복 보존한 사례는 업계 최초이다.

국순당은 국가 미생물은행에 백세주 및 국순당 막걸리를 빚는데 사용되는 누룩곰팡이와 효모, 유산균 등 주요 양조 미생물 등을 보존할 예정이다. 국순당은 고서에 소개된 생쌀발효법을 연구, 전통 누룩에서 분리 선별한 우수한 양조 미생물로 우리나라 전통주 시장을 개척한 백세주와 생막걸리의 전국 유통 시대를 개척한 국순당 생막걸리 등을 개발했다. /신원선 기자

## 2주간 '처음처럼' 논현 영동시장' 팝업

롯데칠성음료, 지하철역 콘셉트 기획

롯데칠성음료가 18일부터 10월 2일까지 2주간 서울 논현 영동시장에서 '처음처럼' 논현 영동시장' 팝업 스토어를 운영한다.

'처음처럼'으로 환승하세요'란 지하철역 콘셉트로 기획된 이번 팝업 스토어는 논현 영동시장을 방문한 소비자들에게 호기심을 갖고 자연스럽게 방문할 수 있도록 지하철 출입구 형태의 입구와 '처음처럼'의 주원료인 암반수 체험 공간, 기념 촬영을 위한 처음처럼 대형 구조물 등으로 이뤄졌다.

또한, 팝업 스토어를 방문한 고객에

게 간단한 질문을 통해 '부드러움 라인', '100% 암반수 라인', '정통 소주 라인', '처음처럼 라인'과 같이 4가지 콘셉트로 묶여진 논현 영동시장 상권의 주요 맛집을 추천하는 콘텐츠도 운영할 예정이며, 지하철 역무원으로 분장한 행사 인원들이 '더 부드러운 처음처럼'으로 환승하세요'라는 메시지를 전할 계획이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앞으로도 '처음처럼'은 다양한 상권에서 100% 암반수, 부드러운 목넘김 등 더 부드러운 '처음처럼'의 차별적인 핵심 가치를 강조하는 적극적인 마케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 신세계그룹, 10개 계열사 신입사원 공채

내달 13일까지 채용홈피서 접수

신세계그룹이 이달 19일부터 2026년 신입사원 공개 채용을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올해부터는 기존의 인턴십 과정을 폐지하고 서류와 면접 전형만으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는 등 채용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 채용에는 이마트, 신세계백화점, SCK컴퍼니(스타벅스), 신세계퍼퍼티, 신세계디에프(면세점), 신세계I&C, 신세계센트럴, 신세계푸드, SSG닷컴, 신세계라이브쇼핑 등 총 10개 계열사가 참여한다. 서류 접수는 이달 19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신세계

그룹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된다. 서류 전형 결과는 10월 말에 발표된다.

신세계그룹은 올해부터 채용 연계형 인턴십을 없애고 최종 합격자를 바로 선발한다. 이에 따라 최종 합격자는 기존보다 한 달 빠른 내년 1월에 입사하게 돼, 조기에 진로를 확정하고 안정적으로 경력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고 그룹 측은 설명했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올해부터 인턴십 과정을 없애 신속하고 집중도 높은 채용을 진행함으로써 지원자들에게는 불확실성을 줄여주고 회사는 미래 인재를 조기에 확보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손종욱 기자